

송강호 '비상선언' 박소담 '후쿠오카' 출연



송강호



박소담



조여정



최우식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차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조명 받은 출연 배우들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상식에는 송강호부터 이선균·조여정·박소담·최우식·이정은·장혜진·박명훈까지 주연 배우 8명이 모두 참석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송강호는 '기생충' 이후 영화 '비상선언'으로 돌아온다. '관상' (2013) '더 킹' (2017)의 한재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신작으로, 항공기 테러를 소재로 한 재난 블록버스터다. 송강호와 함께 이병헌이 투톱으로 출연한다.

이병헌은 2016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무대에 시상자로 나선 적이 있다.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래 '레드: 더 레전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등에 출연하며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다진 덕분에 이다.

'기생충' 배우들 차기 행보 벌써부터 관심

최우식 미국 영화 제작사에서 러브콜 '전생' 출연 검토

조여정·이선균·장혜진·박명훈은 TV 드라마서 맹활약

최우식은 미국 영화 제작·배급사인 A 24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영화 '전생(Past Lives)' 출연을 검토 중이다. A 24는 '문라이트' (2018), '유전' (2018), '레이디 버드' (2018) 등을 만든 제작사다. 미국 매체 클라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전생'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나중에 다시 재회하는 내용이다.

각본과 감독은 쉐린 송이 맡았고, '노인을 위한 나라'의 스티븐 루딘과 '레이디 버드'의 엘리 부시가 함께 제작한다.

'기생충'에서 제시카송으로 명성을 얻

은 박소담은 다음 달 개봉하는 장물 감독 신작 '후쿠오카'로 관객을 만난다. 28년 전 한 여자 때문에 절교한 두 남자와 귀신 같은 한 여자의 기묘한 여행을 담은 작품으로, 박소담은 두 남자를 재촉어보는 미스터리한 캐릭터 '소담' 역을 맡아 권해효, 윤재문과 호흡을 맞췄다.

조여정은 최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99억의 여자'에서 '기생충' 속 부자집 사모님과는 전혀 상반된 캐릭터를 선보여 호평받았다. 우연히 현금 99억원을 손에 쥐어 여자 정서연 역을 맡아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박사장' 이선균은 현재 JTBC 월화드

라마 '검사내전'에 출연 중이다. 남해안에 있는 가상의 소도시 진영에서 일하는 생활밀착형 검사 이선웅 역을 맡았다.

'기생충' 속 기택(송강호) 부인 충숙 역을 맡은 장혜진과 지하 병커에 살던 근세 역의 박명훈은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서단(서지혜)의 엄마 고명은과 서단의 외삼촌 고명석 역을 맡아 코믹 연기를 선보인 다.

박 사장네 가정부 문광 역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이정은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이 엄마 역으로 빼어난 연기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나홀로 그대'에서 여주인공 소연(고성희)의 엄마 역을 맡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에선 고릴라 목소리를 연기했고, 영화 '내가 죽던 날' (박지완 감독)에도 캐스팅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생충' 탄생시킨 한국 영화계 포스트 봉준호 '사냥의 시간' 윤성현·'지푸라기' 김용훈 주목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외국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 등 4관왕에 오른 '기생충'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2000년 초반 황금기를 누리던 한국 영화의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시기 봉준호 감독은 사회의 어두운 진실을 보여주는 '살인의 추억'과 '마더' 등을, 박찬욱 감독은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 복수 시리즈를 내놨다. 이창동 감독은 삶에 대한 통찰을 담은 '오아시스'와 '박하사탕'을 내놨다. 이들 영화와 감독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젊은 감독과 배우를 주목하고 있다.

배우 윤여정과 한여리의 할리우드 진출작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의 '미라리'는 미국 최고 독립영화제인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지난해 김보라 감독은 데뷔작 '벌새'로 전 세계 우수 영화제에서 36관왕을 달성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연출한 김용훈 감독은 장편 데뷔작인 이 영화로 지난달 열린 제49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거머쥐었다. 이 영화는 인생 마지막 기회인 돈 가방을 차지하기 위해 최악의 행동을 계획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범죄극이다.

데뷔작 '파수꾼'으로 호평받은 윤성현 감독 신작 '사냥의 시간'은 오는 20일 개막하는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초대됐다. 이 영화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야기를 그리는 스릴러다.

/연합뉴스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 대중문화계 환호

BTS "봉감독님 정말 정말 정말로 정말이지 정말 축하"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자 국내 대중문화계 인사들도 자기 일처럼 축하와 환호를 보냈다.

그들 방탄소년단(BTS)은 10일 트위터 계정에 봉 감독 사진과 함께 "봉준호 감독님 정말 정말 정말 정말로 정말이지 정말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배우 최우식의 시상식 사진과 함께 "#우식씨눈물흘리는거잖았어요"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최우식은 방탄소년단 멤버 뷁과 절친한 사이다.

'기생충'에서 기우(최우식) 친구 민혁 역으로 특별출연한 박서준은 소셜미디어에 작품상 발표 생중계 영상과 함께 "미쳤다..." 하는 짧은 글을 올려 감격을 나눴다. 최우식 시상식 모습을 찍어 올리며 "솔

직히 눈물 흘리는 거 나는 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방송인 홍성천은 "세상에 왓 각 눈물이 쏟아졌다. 봉준호 감독님 최고다. 축하드립니다"라며 "한국인이라는 게, 한국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라고 SNS에 적었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분!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값진 이 기분!"이라며 "봉준호 감독 & BTS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썼다.

네티즌들의 축하와 감격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김구 선생이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던 것을 봉 감독 수상 이후 다시금 회자하면서 자랑스러움을 나누기도 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역사저널 그날(재) 55 UHD 숨터(재)	00 포레스트(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BBB삼총사의 모험 55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티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우리말 겨루기(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두 번은 없다(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차종우돌 전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50 환상의 타이밍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디오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10'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실화탐사대	00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개그 콘서트(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00 EBS 다크프라이미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몰락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30 아웅명명 귀여워2(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마그레브의 골목길 북아프리카 -천년의 도시 오래된 유산>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21:30 한국기행
09:40 아웅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겨울, 내 곁에 3부 겨울은 푸르다>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명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극한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EBS 초대석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2일 (음 1월 19일 乙酉)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주리라. 48년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60년생 간절히 바라던 일이 궁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느니라. 72년생 개괄적인 파악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된다. 84년생 객관적이지 않다면 실용성이 없다. 96년생 겉다르고 속 다르다는 사실을 알라.</p> <p>행운의 숫자 : 06, 55</p>	<p>午</p> <p>42년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상이다. 54년생 다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66년생 단단해 보였던 것이 쉽게 파손될 수 있다. 78년생 단일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다. 90년생 달콤한 결실을 하나하나 따게 되는 기쁨이 있다. 02년생 대국의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p> <p>행운의 숫자 : 49, 94</p>
<p>丑</p> <p>37년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49년생 겉이 희다고 속까지 같으리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61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73년생 결과를 보는 날이다. 85년생 결코 녹록치않은 양을 것이다. 97년생 경제성부터 헤아리자.</p> <p>행운의 숫자 : 45, 73</p>	<p>未</p> <p>31년생 대체로 길조이다. 43년생 대체적인 흐름은 양호하나 작은 결림들도 보인다. 55년생 꼼꼼히 살펴보고 완전성을 도모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67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든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79년생 이루어지리라. 91년생 막연한 희망 사항이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p> <p>행운의 숫자 : 12, 77</p>
<p>寅</p> <p>38년생 경험에 비추어 냉정하게 판단함이 옳다. 50년생 예리한 안목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미래의 보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62년생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겠다. 74년생 고정 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운 열을 볼 수 있다. 86년생 고진감래하는 격이다. 98년생 과도하다면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p> <p>행운의 숫자 : 51, 95</p>	<p>申</p> <p>32년생 운색하거나 변형시키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44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56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80년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92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p> <p>행운의 숫자 : 05, 51</p>
<p>卯</p> <p>39년생 관계가 매끄러워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느니라. 51년생 복잡하게 얽히면서 목적인 바와 거리가 생길 수 있느니라. 63년생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75년생 편협은 운세이니 강구해도 될 것이나. 87년생 구체적이었을 때 생산적이다. 99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손질하라.</p> <p>행운의 숫자 : 24, 72</p>	<p>酉</p> <p>33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하느니라. 45년생 탄력이 없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라. 57년생 화해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69년생 가능성은 반반이니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81년생 누적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93년생 절차대로 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46, 96</p>
<p>辰</p> <p>40년생 근처에 있는 사람이 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52년생 기동력과 순발력이 시급하다. 64년생 기쁨은 한 순간일 뿐인데 아쉬움은 많이 남으리라. 76년생 기억에 생원히 각인 될 수 있는 일이 생기리라. 88년생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00년생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p> <p>행운의 숫자 : 42, 84</p>	<p>戌</p> <p>34년생 냉철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헤안이 필요하다. 46년생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 58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70년생 행태에 동조고리 넘어가듯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82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94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p> <p>행운의 숫자 : 25, 86</p>
<p>巳</p> <p>41년생 낙관적인 미래이다. 53년생 내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65년생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77년생 자신이 쏟아 부은 노력과 대비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89년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나서는 양태이다. 01년생 다들 다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p> <p>행운의 숫자 : 41, 56</p>	<p>亥</p> <p>35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47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59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차질을 빚지 않는다. 71년생 의연히 대처하자. 83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95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p> <p>행운의 숫자 : 03, 90</p>